

철학사

79 논리실증주의 이후의 윤리학 (휘튼 대학 아서 홈즈 박사)

이번 주에는 목소리가 돌아온 것 같아서 좀 덜 고통스럽네요. 여러분도 그러시길 바랍니다. 지난주에는 일상 언어 분석이 논리 실증주의자들의 경직된 과학적 경험주의를 어떻게 확장하고 완화시켰는지 살펴보았습니다. 특히 1950년대와 60년대 초에 신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어떤 경험적 근거를 찾으려 애썼던 종교 언어 논쟁을 통해 이를 살펴보았죠.

오늘 아침, 아니, 조금 늦었지만, 오후에 윤리 이론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논리 실증주의부터 시작해서, 일상 언어 분석이 정서 주의 윤리 이론을 통해 논리 실증주의의 독점적 지위를 무너뜨리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에이어는 그의 저서 『윤리와 신학』의 한 장에서 도덕적 판단이란 존재하지 않고, 오직 감정 표현만이 있을 뿐이며, 주관적인 상황에 대한 진술조차 판단이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것들은 단지 심리적 상태에 대한 묘사일 뿐, 도덕적 판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이 잘못됐다거나 전쟁이 수치스럽다고 말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표현일 뿐, 우리가 이야기하는 대상에 어떤 논리적 근거도 제시하지 못합니다. 일상 언어 분석의 영향은 우리가 메타윤리학이라고 부르는 분야, 즉 GE 무어가 '선'이란 무엇인가를 탐구하면서 만들어진 용어와 관련된 논쟁에서 드러납니다. 무어는 우리가 선에 대한 직관적인 지식과 직관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그것을 행복, 쾌락, 효용, 자연 법칙, 또는 그 어떤 경험적 또는 형이상학적으로 정의 가능한 자연적 속성으로 환원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의 자연주의적 오류입니다.

에이어는 무어의 직관주의에 대해, 선(善)을 정의하거나 묘사할 수 없다면 그 용어는 무의미하다고 주장하며 반박했습니다. 따라서 정서주의 이론은 그러한 고찰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하지만 메타윤리학은 윤리적 언어의 의미와 관련이 있습니다.

결과로 메타윤리학적 문제가 주요 관심사가 되었음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도덕 용어는 아무것도 지칭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직관주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WD 로스는 직관적인 것이 곧 옳다는 직관주의를 계승했는데, 여기서 직관주의는 좋은 것이 아니라 옳은 것을 의미합니다. 밀과 할 수 없다는 개념을 구분하듯이, 직관과 옳음이라는 두 용어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습니다. 밀과 결과주의 또는 목적론적 윤리는 모두 좋은 결과, 즉 우리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목적에 관심을 둡니다.

권리는 행위의 질이나 동기 자체와 관련이 있으며 결과와는 무관합니다. 반면, 할 수 없을 때의 권리는 항상 의무감에서 비롯됩니다. 따라서 WD 로스는 우리가 옳음을 직관적으로 인식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체결했거나 약속을 한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 그러면 우리는 후속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따라서 이 용어의 의미는 특정한 관계와 계약에서 발생하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의무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기서 시작된 내용이 계약 주의적 주제, 즉 계약주의적 관점으로 인해 훨씬 더 자주 사용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계약을 체결했으므로 우리는 의무를 지게 됩니다. 나중에 우리는 이것이 모든 도덕적 의무의 기초, 일종의 계약적 관계로 보편화된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로스가 권리에 대한 우리의 직관적 인식을 예시로 들기 위한 단순한 참조점일 뿐입니다.

하지만 일상 언어 분석은 제가 언급한 다른 발전 과정을 설명할 때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합니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가르쳤던 윌리엄 프랭크너가 발전시킨 도덕적 관점 접근법이 있는데, 그는 100~120페이지 분량의 입문서인 《단순 윤리학(Simply Ethics)》을 저술했습니다. 이 책은 아마도 다른 어떤 윤리학 서적보다 더 많이 사용되었고, 지금도 참고되고 있습니다. 프랭크너는 개혁주의 기독교 배경을 가지고 있었으며, 칼빈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그의 저서에서 유신론이 명시적으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 이면에는 깔려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쓴 한 논문에서 그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제가 전에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1930년대 후반에 GE 무어의 자연주의적 오류에 대한 반박으로 쓴 글입니다. 그는 '존재'에서 '당위'를 추론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 신학적 전제와 같은 추가적인 전제가 있다면 '존재'에서 '당위'를 추론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시 말해, A는 논리적으로 B를 함의하지 않지만, A에 B를 더하면 논리적으로 B를 함의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의무의 근원, 가치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전제를 추가하면 특정한 사실적 전제로부터 도덕적 의무를 추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약 전제 B에서 신, 즉 인격적인 도덕적 존재가 있다고 말한다면, 곧바로 그 전제 자체에 가치 판단이 개입하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의 철학계에서의 명성을 확립시켜준 그 초기 논문은, 이후 그가 도덕적 관점을 강조하게 된 토대를 마련했다고 생각합니다. 윤리학 용어의 의미는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데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말해, 도덕적 관점을 취한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 사물을 도덕적으로 평가하겠다는 비인지적인 태도를 포함하는 비인지적인 요소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비인지적인 관점이 더해지면, 도덕적 용어는 도덕적 관점에 수반되는 태도를 지칭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도덕적 용어는 심리적인 준거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일종의 윤리적 주관주의로 이어진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즉, 도덕적 용어가 도덕적 관점을 취하는 것과 같은 주관적 상태와의 관계 속에서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인지적 도덕 판단이 여전히 존재하게 되는데, 이는 AJ 에이어의 경우와는 다른 점입니다. 커트 바이어는 이 호주 철학자의 두 번째 대표적인 인물입니다.

더 널리 알려진 것은 RM 헤어의 규범주의입니다. 옥스퍼드에서 가르쳤던 R M 헤어는 제가 종교 언어 논쟁과 관련해서 언급했던 인물입니다. 당시 누군가가 시도하는 것에 대해 비이성적인 반응을 보였던 옥스퍼드 교수의 사례를 드렸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그의 저서 『도덕의 언어』에서 그는 일상적인 대화에서 도덕적 언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분석하려고 시도했습니다 . 그리고 도덕적 언어에 스퍼트 든 것은 직설법보다는 명령법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 즉, 근본적인 의미는 "A는 B이다" 또는 "도둑질은 잘못이다"와 같은 사실 진술이 아니라 명령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지 마세요! 도덕적 언어는 서술이 아니라 규범입니다. 따라서 도덕적 언어는 사실적 서술에 대한 실증주의적 검증을 회피합니다. 도덕적 주장은 사실적 서술이 아니라 규범이므로, 전혀 다른 것입니다.

논증주의적 언어관이 너무나 조잡하게 축소되어 동어반복과 서술적 진술만 허용한다는 주장에는 다음과 같은 점이 암묵적으로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감정적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명령이나 기타 표현은 어떨까요? 이 문제는 비트겐슈타인의 글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제가 지난밤, 아니 지난주에 읽어드렸던 구절 에서 비트겐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누군가가 ' 너는 ~하지 말라' 고 말한다."

이에 대한 답변으로 당신이 하고 싶은 말은, "만약 내가 그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일 것입니다. 비트겐슈타인이 다루고 있는 것은, 사실 진술이나 감정 표현만을 할 수 있다는 환원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하지 말라'는 명령의 기묘함입니다. 당신은 "이 '하지 말라'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됩니다. 헤어는 바로 이 점을 포착하여 도덕적 판단뿐 아니라 다른 모든 종류의 도덕적 언어에서도 나타나는, 규범주의적 특징으로 보고 있습니다.

물론 그러한 규범주의는 그 근거에 대해 상당히 모호합니다. 사회적 규범일 수도 있고, 부모의 규범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명령이나 지시일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신의 명령일 수도 있죠. 그리고 그 신의 명령에 대한 언급은 조금 뒤에 나옵니다.

규범주의에 이어 곧이어 기술주의가 등장했습니다. 기술주의는 UCLA의 필리파 퍼트와 여기 계신 존 설이 주장하신 것으로, 핵심은 단순히 경험적 사실에 기반하지만, 가치 판단이 담긴 경험적 사실에 기반한다는 것입니다

하기 위해 " 현실에서 당위를 도출하는 방법"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그 방법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더 잘 볼 수 있도록 잠시 칠판을 끄겠습니다. 존스는 " 나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한다" 라고 말했습니다 .

이것은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사실 진술입니다. 따라서 존스가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기로 약속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이는 간단한 번역입니다. 그러므로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를 스스로에게 부여했다는 결론이 다시 나옵니다 . 이는 용어의 정의 에 따른 단순한 추론입니다.

간단히 말해,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다시 간단히 말해, 존스는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렇게 경험적으로 검증 가능한 진술에서 도덕적 의무가 도출됩니다.

즉, 약속과 같은 사회적 행위, 즉 경험적으로 서술 가능한 사실적 상황들이 있습니다. 도덕적 당위성을 수반하는 서술 가능한 상황들도 있습니다. 따라서 '존재' 와 '당위' 를 구분하기 위해서는 서술을 신중하게 설명하고 그에 맞게 해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소가 지적한 것은, 존스가 "나는 이로써 스미스에게 5달러를 지불하겠다고 약속한다"라고 말한 것과 같은 일종의 언어 행위라는 점입니다. 이것은 도덕적 책임을 수반하는 언어 행위입니다.

언어는 AGA의 지나친 단순화보다 훨씬 더 다양합니다. 그래서 기술주의가 생겨나는 거죠. 여러모로 가장 흥미로운 발전 중 하나는 신의 명령 이론입니다.

신의 명령 이론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면, 윤리 이론 분야에 종사해 오신 분들에게는 이미 익숙한 내용일 수도 있겠지만, 이 이론은 중세 시대, 심지어 플라톤의 대화록인 『에우티프론』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소크라테스가 부모에 대한 존경과 신에 대한 존경 등을 논하는 부분에서, 신의 명령이 신의 뜻이기 때문에 옳은 것인지, 아니면 신이 그 명령이 옳기 때문에 뜻하는 것인지에 대한 질문을 제기합니다. 플라톤은 바로 이러한 질문을 던졌습니다. 요점은 우리의 도덕적 의무를 신의 뜻에 귀속시키는 오랜 전통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계명은 어떻게 선포되었든 간에, 윤리적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다루어졌습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이러한 방식으로 접근하는 이유는 신의 계명론이 적어도 두세 가지 다른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하기 위함입니다.

이 개념은 도덕적 의무의 근거에 대해 이야기할 때 사용될 수 있으며, 저는 이것이 아마도 가장 유용한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왜 선행해야 할까요? 바로 신의 뜻 때문입니다. 신의 명령 이론이죠.

도덕적 의무의 근거는 아주 명백합니다. 또한 도덕적 지식의 원천이라는 관점에서 사용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신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덧붙여 말하자면, 칼 헨리는 윤리학 저술에서 바로 그 점을 강조합니다. 사실 그는 이러한 여러 측면을 구분하지는 않지만, 도덕적 지식의 근원을 강조하는 데 주로 초점을 맞춥니다. 도덕적 문제에 있어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모두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한다면, 여전히 도덕적 지식의 근원을 강조하는 데 이 개념을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로마서 1장에서 바울은 일반 계시를 통한 도덕적 지식에 대해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인간 본성이 기능하도록 구성된 방식에 도덕률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창조주라는 것은 그 안에 있는 신적인 명령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신적 명령 이론이 사용되는 세 번째 방식이자, 후기 실증주의적 맥락에서 중요한 방식은 도덕적 용어의 의미와 관련하여 사용됩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지, 좋고 나쁘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여기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 즉 하나님의 뜻을 가리킨다. 따라서 신의 명령론의 갱신은 에이어가 제기한 문제들을 다루기 위해 등장했다.

이러한 점은 UCLA의 로버트 애덤스 교수의 저술에서 가장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그런데, 혹시 작년에 학회 참석차 이곳에 왔을 때 마릴린 애덤스 여사를 만나보셨을지도 모르겠네요. 로버트 애덤스는 그녀의 남편입니다.

그들은 UCLA에서 함께 일하는 부부 교수입니다. 정말 훌륭한 부부죠. 남편분은 신의 명령론에 관한 논문을 여러 편 쓰셨습니다.

필립 킨은 이 주제에 관한 책을 썼습니다. 그는 브라운 대학교에 있었고,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처럼 지금은 노트르담 대학교 에 있습니다.

에는 온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 필 킨도 그곳에 있죠. 그는 현재 기독교 철학자 협회의 학술지인 《신앙과 철학》의 편집장을 맡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이 두 사람이 주요한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의 명령설에 대한 강조는 엘리자베스 앤스콤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신은 누구의 이름을 알아야 할까요?

영국의 가톨릭 여성 철학자로, 1940년대부터 도덕 철학과 철학적 심리학 분야에서 훌륭한 업적을 쌓아왔습니다. 제 생각엔 1955년이었던 것 같은데 , 그녀는 영국 학술지 '마인드(Mind)'에 '현대 도덕 철학'이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녀는 『현대 도덕 철학』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현대 윤리학에서 법의 개념을 없애려는 일종의 음모가 있었던 것 같다고 불평했습니다 . 특히 공리주의의 영향력을 지적한 것입니다.

하지만 물론, 이번 세기 전반부의 역사는 공리주의 윤리의 확산뿐만 아니라 논리 실증주의의 등장도 포함합니다. 논리 실증주의는 명백히 도덕 철학에서 법의 개념을 배제했습니다. 그녀의 주장은 어떤 종류의 도덕이 없다면 그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이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입법자의 입장에서 도덕률이라는 개념을 유지하기란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서양 전통에서 도덕법 개념의 뿌리가 유대-기독교 전통과 로마 스토아 철학에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이 두 전통의 조합을 살펴보면, 그녀는 가톨릭 신자이자 토마스 아퀴나스주의자로서 도덕법에 대한 강조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우리에게 의무뿐 아니라 도덕법이라는 개념의 의미에 대한 근거를 제공할 것입니다. 도덕법이라는 개념의 의미란, 도덕법을 제정하는 주체가 있을 때 비로소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녀가 원하는 것은 자연법 이론일 것입니다. 신의 명령과 자연법의 결합이죠. 신의 명령은 도덕적 용어에 의미를 부여할 뿐만 아니라 권위의 근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자연법은 우리가 도덕적 의무가 무엇인지 어떻게 아는가라는 측면에서 중요합니다. 따라서 그 이야기는 윤리 이론 전체를 실증주의자들이 등장하기 이전의 상태로, 사실상 그 이전으로 되돌려 놓는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오히려 더 발전했다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신의 명령 이론에서 나타나는 순수 공리주의 윤리에 대한 심각한 도전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덕적 관점과 규범주의 윤리학 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의견이나 질문 있으신가요? 네, 칼. 네, 하지만 칼, 좀 더 명확하게 설명해 주세요

을 제정하는 주체가 없다면 도덕률이라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도덕률에 대한 경험적 기준점이나 사실적 기준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인간이 제정한 법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경우에는 입법부나 통치자가 도덕률 제정자의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성한 법의 권위를 갖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보편적이고 불변하는 도덕법에 의미를 부여 하기 위해 신성한 법 제정자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개념은 경험적으로도, 사실적으로도 무의미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칸트는 이에 대해 어떻게 반응할까요? 우선, 칸트는 경험적 의미나 경험적 검증 가능성 같은 것에는 관심이 없을 것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칸트는 정반대로 접근하기 때문에 당신의 질문은 흥미롭습니다. 칸트는 우리가 의무감에 대한 직관적 인식을 갖고 있는 한, 우리는 그것을 어떤 식으로든 설명해야 한다고 말할 것입니다.

즉, 궁극적으로 도덕률을 제정하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제 생각에는 칸트는 앤스콤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칭찬하면서도, 형이상학적 토대를 가진 그녀의 자연법 이론은 거부할 것 같습니다.

곧 알게 될 겁니다. 하지만 도덕률과 도덕률 제정자 칸트는 앤스콤만큼이나 그 연관성을 명확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입법자를 가정해야 한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 그리고 제 생각에 앤스콤은 적어도 1950년대 토마스주의자로서 도덕 입법자를 설명하기 위해 토마스의 다섯 가지 논증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입법자가 없더라도 칸트는 우리에게 의무가 있다고 말했을 것입니다.

네, 그는 우리에게 도덕적 의무감이 있다고 말할 겁니다. 그런 직관 말이죠. 네, 우리는 항상 의무감에 따라 행동해야 한다는 공통된 도덕적 기반을 직관적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직관적이죠. 모순은 합리적으로 행동하려다가 잘못된 일을 하려고 할 때 발생합니다 . 바로 그 지점, 특정한 도덕적 판단에서 모순이 드러나는 거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 당신이 말하려는 차이점은 바로 이것입니다. 저는 칸트를 설명할 때 '직관적'이라는 용어를 사용합니다. 네, 무어나 로스가 말하는 것처럼 직관적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도덕의 공통된 핵심이라는 의미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실증주의적 검증 가능성 기준의 등장으로 인해 앤스콤은 그러한 접근 방식을 피하고 싶어했을 것입니다. 실증주의자는 칸트에게 이렇게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의무감의 지위는 무엇인가? 이 의무감의 의미는 무엇인가? 이것은 경험적으로 접근 가능한 의무감인가?" 그러면 실증주의자는 "아니다, 그렇지 않다"라고 대답할 것입니다.

이어의 정서주의 이론 에 의해 배제된다는 거죠 . 이해되시나요? 앤스콤은 이 부분을 우회하면서 의무 또는 도덕률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되찾으려고 합니다. 따라서 도덕률을 부여하는 주체가 있어야만 의무 또는 도덕률이 성립한다는 논리를 펼치는 겁니다.

칼? 그러니까 이러한 도덕 법칙에 대한 인식은 도덕 법칙을 부여한 존재의 결과물일 뿐이라는 거죠?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좀 더... 네, 네, 네. 그러니까 철저한 자연주의자라서 도덕 법칙을 부여한 존재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 법칙에서 어떤 의미도 찾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사실적인 의미는 전혀 찾지 못할 거고요.

자,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듯이, 에이어의 검증 가능성 이론의 관점에서 "우리 모두는 보편적인 법칙에 의해 도덕적으로 구속된다"라는 진술에 어떤 의미가 부여되는지 자문해 보세요. 이해 되시죠? 도덕적으로 구속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을 해야 한다는 주관적인 감정을 갖는다는 것일까요? 죄책감이라는 주관적인 감정, 좋습니다. 에이어는 심리학자가 설명할 문제이지 도덕적 의무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말할 겁니다. 이해되지요? 따라서 단순히 심리학적 설명에만 의존하는 것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에이어의 네 가지 도덕적 언어 유형을 기억하시나요? 기억하시죠? 심리학적 설명이 있고, 심리학적 설명과 다른 주관적 설명이 있습니다.

물론 단순히 감정을 표현하는 권고도 있고, 노골적으로 감정을 드러내는 발언도 있으며, 도덕적 판단을 표방하는 발언도 있습니다. 그리고 메타윤리적 진술도 있다고 해야겠죠.

좋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죠. 도덕 언어와 그 의미에 대한 논쟁의 결과로 규범윤리학이 다시 주목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년 동안 규범윤리학 분야에서는 매우 활발한 활동이 펼쳐졌습니다.

제가 가장 영향력 있는 작가 다섯 명을 소개했는데, 여러분이 알아두면 좋을 이름들입니다. 윤리 이론 수업을 들었다면 이미 알고 계실 수도 있겠죠. 하버드 대학교의 존 롤스는 정의론에 관한 저서에서 계약주의적 접근법을 제시했습니다. 존 로크의 자연 상태 개념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는 공통의 필요와 권리 때문에 일종의 사회 계약에 기반한 시민 사회가 형성되었다고 주장했죠.

롤스가 말하는 것은 단순히 정부의 계약주의적 기반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도덕의 계약주의적 기반에 대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는 롤스의 자연상태에 상응하는 자신만의 상태를 설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가 묘사하는 것은 그가 '무지의 장막'이라고 부르는 것의 이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무지의 장막. 다시 말해, 어떤 집단이 자신들에게 좋은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래의 결과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고 주장하는 태도를 취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바로 무지의 장막입니다.

그렇다면 무지의 장막 뒤에서 우리 삶을 질서 있게 이끌어갈 원칙은 무엇일까요? 그는 자신이 제안하는 원칙이 두 가지에 기반한다고 말합니다. 첫째, 사회의 이익과 비용은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둘째, 불평등이 존재할 때는 가장 불리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장 불리한 계층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는 그런 방식으로 정치경제 체제를 어떻게 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려고 했습니다. 완전히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그가 비용과 이익의 균형을 이야기할 때, 분명히 결과주의적인 관점이 엿보입니다. 하지만 이는 공리주의적인 접근 방식은 아닙니다. 그는

단순히 " 최대한 많은 사람에게 최대 의 이익을 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요. 칸트주의적인 면이 있어요. 평등을 강조하고 다른 고려 사항들을 무시하는 부분이 그렇죠. 칸트적인 면이 있긴 하지만, 기본적인 의무감에서 비롯된 칸트 윤리는 아닙니다.

이는 계약주의적 체계입니다. 따라서 도덕은 어떤 신의 명령이나 선협적인 도덕 원칙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과에 대한 경험적 평가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 신의 명령, 자연법, 칸트 윤리학, 공리주의 윤리학 모두 사라지게 됩니다.

윤리학자 들 뿐만 아니라 정치학, 경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엄청난 논의를 불러일으켰습니다 .

일반적으로 그는 이러한 원칙들을 바탕으로 보수주의적이라기보다는 자유주의적인 정치경제 철학에 더 가까운 성향을 보입니다 . 하버드 대학교의 로버트 노직 역시 그의 저서 『무정부주의, 국가, 그리고 유토피아』에서 극도로 보수적인 경제 및 정치 사상을 제시합니다. 노직은 기본적인 원칙은 오직 하나뿐이라고 주장합니다.

개인이 타인으로부터 불법적으로 취하지 않는 한 ,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얻을 권리가 있다는 것, 즉 획득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는 일종의 윤리적 이기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불리한 계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을 옹호하기도 합니다 . 하지만 본질적으로는 철저한 개인주의입니다.

제 생각에 그는 개인의 주도성과 최소한의 법적 규제 및 사회 안전망을 바탕으로 한 권리 획득을 강조하는 레이거노믹스의 철학적 표현인 것 같습니다. 흥미롭게도 하버드에서 같은 학과에 같은 시기에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우리 졸업생 중 한 명이 하버드 로스쿨에 다니고 있었는데, 그들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법학 수업에서 이 두 가지 관점에 대해 토론하던 중, 교실 뒤쪽에서 들려온 목소리, 알고 보니 롤스였는데, 그가 누군가의 말을 끊고 정정했다.

그리고 방 반대편에서 또 다른 목소리가 들렸는데, 알고 보니 노직이었다. 그 목소리도 마찬가지로 끼어들었고, 그렇게 그 법대 수업에서는 두 사람이 이 문제에 대해 토론하게 되었다. 아마 토론이 꽤 많았을 것 같다. 시카고 대학교의 앨런 굿워스 교수는 불과 몇 년 전에 은퇴했다.

이성과 도덕. 본질적으로 칸트주의자 . 그리고 여러 면에서 그는 칸트 윤리학의 부활을 대표하는 인물이다.

인간 존중이라고 불립니다 . 인간 존중 은 기본 원칙입니다. 칸트가 정언 명령의 두 번째 정식화에서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했던 것을 기억하시죠?

인간 존중 . 앨런 굿워스는 우리 각자가 자신의 삶의 목표를 추구할 수 있는 최대한의 자유를 원한다는 사실로 이를 설명하려고 합니다. 제가 그러한 자유를 원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고 일관성을 유지하려면, 다른 사람들의 자유 또한 같은 목적으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가 '일반적 일관성의 원칙' 이라고 부르는 것을 갖게 됩니다. 일반적 일관성의 원칙은 사실 칸트의 보편화 가능성 원칙입니다. 자신의 목적, 자신의 목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면서 타인의 동일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일반적 일관성의 원칙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칸트 윤리학을 그런 식으로 재구성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시카고 대학에서 오랫동안 재직하다가 캘텍으로 옮긴 앨런 도네건은 불과 1년 반에서 2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앨런 도네건의 저서 『도덕론』 역시 칸트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그는 인간 존중이라는 원칙을 중심으로, 보다 구체적으로 발전된 윤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어떤 추론이 가능한지 탐구하고자 했다. 그는 유대-기독교 윤리의 핵심 원칙들이 옳다고 주장했다.

흥미로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가 예전에 여기 왔을 때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문제를 깊이 고민하고 논증하는 데 여러 해가 걸렸지만, 책이 출판된 후 그는 유대-기독교 윤리가 옳다면 그 이면에 깔린 신학 또한 옳을 가능성이 높고, 따라서 자신은 기독교인이 되어야 한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윤리적인 사람이었던 그는 실제로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정말 놀라운 인물이기도 합니다.

여러 맥락 에서 살펴보셨을 이름일 겁니다. 이 세 작가의 작품은 이 분야에서 매우 영향력이 크며, 도덕적 결정과 행동에 대한 규칙 중심적 접근 방식에서 벗어난 새로운 전환점을 보여줍니다.

거기서 벗어나 규칙에 기반한 도덕적 결정 접근법, 즉 의사결정 윤리로 나아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나아가 우리가 덕 윤리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개인의 행동의 도덕적 질보다는, 그 사람의 도덕적 자질, 즉 인격 자체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는 저서 『덕 이후』에서 소크라테스 이전 시대, 아니 호메로스 시대부터, 더 나아가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 이전 시대, 그리고 칸트 이후 시대까지 윤리학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추적했습니다. 그는 초기 그리스인들부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스토아 학파, 그리고 중세 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덕의 함양에 주로 관심을 기울였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영혼의 성장과 발전에 대한 관심은 플라톤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

아우구스티누스 등의 사상에서 인격 발달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8세기 계몽주의 시대에 이르러서야 결정과 행동을 우선시하는 규칙 기반 윤리가 발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지나치게 일반화해서는 안 됩니다 .

아우구스티누스와 토마스 아퀴나스처럼 자연법적 윤리 접근법을 취한 사람들에게는 도덕적 규칙, 즉 자연 도덕법과 성경법이 도덕적 결정을 인도하고 올바른 행동을 이끌어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이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지만 더 큰 관심사는 덕목에 관한 것입니다 .

사실 흥미로운 점은, 그리고 처음에는 다소 역설적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가 정당한 전쟁 이론의 규칙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는 사랑이라는 덕목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이라는 덕목 말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정의가 사랑으로 절제되어야 함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정당한 전쟁은 그런 관점에서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매킨타이어는 윤리학에서 이 두 전통의 발전을 추적할 뿐만 아니라, 규칙 중심 윤리에서 덕 이후에 등장한 것, 즉 공리주의의 발전과 덕의 문제에 대한 완전한 무관심을 살펴봅니다. 공리주의는 오로지 행동과 정책의 최대 효용에만 관심을 둡니다 .

그는 도덕적 목적, 즉 인격 발달보다는 비도덕적 목적을 추구합니다. 그는 그렇게 합니다. 하지만 그는 또한 이러한 목적들이 서로 다른 철학적 전통에 기반하고 있으며, 서로 비교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이제, 비공약성이란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의 기준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한 대상을 다른 대상의 용어로 변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둘은 서로 환원될 수 없습니다.

그는 이 두 번째 권인 『누구의 정의인가, 어떤 합리성인가?』에서 이 문제를 더욱 심도 있게 탐구합니다. '누구의 정의인가'라는 질문은 정의의 의미와 요구에 관한 전통들의 양립 불가능성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어떤 합리성인가'라는 질문은 제시된 도덕적 관점에 대한 근거들의 양립 불가능성을 강조합니다. 여기에는 서로 다른 합리적 판단 기준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제는 불과 몇 년 전에 출간된 그의 세 번째 저서, 『도덕적 탐구의 세 가지 대립되는 관점』에서도 다시 한번 드러납니다. 만약 이 세 권의 책 중 한 권만 읽을 시간이 있다면, 세 번째 책을 읽으십시오.

이 책은 다른 책들보다 훨씬 간결합니다. 제 생각에 다른 책들은 절반 분량으로도 충분히 같은 주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매킨타이어는 스코틀랜드계 아일랜드인 특유의 열정적인 언어 구사력과 관심사를 드러내는 스타일이라서, 특히 스코틀랜드와 관련된 역사적 사실들을 다룰 때면 그의 글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그러니까, 스코틀랜드 역사와 관련된 교육뿐만 아니라 다른 역사에 대한 교육도 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는 지적 역사뿐 아니라 사회사에 대한 흥미로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게 이 책에 아주 효과적으로 드러납니다. 세 번째 권에서 다루는 세 가지 대립되는 전통은 이성에 대한 관점뿐 아니라 윤리의 기초에 대한 관점에서 서로 다릅니다.

첫 번째는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입니다. 물론 토마스 아퀴나스에 의해 훨씬 더 완벽하게 발전된 아리스토텔레스 전통이죠. 두 번째는 18세기와 19세기 계몽주의 시대의 해석입니다.

그는 19세기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윤리학 항목을 예로 들면서, 윤리학을 마치 또 다른 과학처럼 다룬다고 말합니다. 그 항목에서는 윤리학이 점차 더 많은 도덕적 지식을 축적하여 보편적으로 인정받게 되고, 결국 실증주의적 추론에 철저히 기반한 보편적 윤리학이 탄생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그는 이러한 합리주의적 접근 방식을 18세기 일부 저술가들의 규칙 중심적 접근 방식의 결과물로 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전통, 즉 세 번째 흐름은 니체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가 다른 것들에 덧붙이는 부분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가 권력 투쟁 속에서 강자와 약자의 윤리를 덧붙인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니체적인 사상이죠.

그가 다른 작업을 하는 동안 포스트모더니즘이 다시 부상했는데, 아시다시피 지금은 정치적 올바름이라고 부르는 것에 중점을 두지만, 본질적으로는 주관주의였고, '나의 진실', '나의 도덕적 기준' 등을 내세우며 이성적으로 근거한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근거한 욕망을 주장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세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 그 중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지 묻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합리성을 구성하는 요소에 대해 서로 다른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 전통의 경우, 아리스토텔레스에서 유래한 지혜와 신중함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는 아리스토텔레스로부터 시작되어 중세 시대에 다시금 강조되었습니다. 두 번째 전통은 준과학적인 방식의 연역적 추론, 즉 과학주의적 이상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물론 단순히 합리화일 뿐입니다. 그것은 감정 의 하수인입니다 . 그리고 여기서 그의 입장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점은 그의 자서전과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 그는 1950년대 젊은 시절에 종교 언어 문제에 대해 글을 쓰기 시작했거든요. 그가 종교 언어 논의에 기여한 바는 종교 언어의 독특한 상투적인 표현, 즉 다른 언어 사용과는 구별되는 종교 언어의 특이한 본질에 대해 이야기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언어 사용으로도 종교적 신념을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었죠.

요점은 당시 그는 바르트주의 신학에 철저히 심취해 있었다는 것입니다. 즉, 신은 이성적 과정과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어떤 실존적 만남을 통해 알려지는 존재라는 것이죠. 그런데 세월이 흐르면서 그는 기독교에서 완전히 멀어졌습니다. 마르크스주의에 관심을 가졌고, 이 세 권의 책은 그가 점차 유신론으로 회귀해 가는 과정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덕 이후』를 출판했을 당시 그는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였지만, 기독교로 완전히 돌아온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이 계속되어 세 번째 권에 이르러서는, 그는 단순히 아리스토텔레스주의자가 아니라 토마스 아퀴나스주의자이자,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보시다시피, 그는 기독교 신앙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다른 많은 훌륭한 사람들처럼, 그는 지금 노트르담 대학교 에 재직 중입니다 .

이것이 바로 윤리학이 발전해 온 방향입니다. 따라서 지난 20년 동안 윤리학 분야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다섯 명을 꼽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에는 롤스의 영향력이 노직, 계워스 , 도네건보다 더 지속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규칙에 따른 윤리적 결정과 원칙에 따른 윤리적 결정에 있어서는 롤스, 덕 윤리학에서는 매킨타이어가 가장 많이 논의되는 두 인물이며, 여러분이 꼭 알아두어야 할 인물들입니다. 자, 여기까지만 말하고 여러분이 질문하고, 의견을 제시하고, 덧붙이는 등 자유롭게 생각해보세요. 결론적으로, 규범 윤리학은 종교 철학처럼 A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존재합니다.

정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되죠. 롤스는 정의를 사회의 이익과 비용을 공평하게 분배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노직은 개인의 권리 옹호라는 측면에서 기본적으로 권리 획득을 옹호합니다. 게워스는 타인과 그의 삶의 계획을 존중하는 것을 옹호합니다. 도네건 역시 개인의 권리라는 측면에서 옹호합니다.

그래서 정의에 대한 강조는 권리 이론의 관점에서 이루어진다고 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네 명 중 누구도 공리주의자가 아니라는 점도 흥미롭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결과론적 고려를 무시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들은 결과론적 고려도 무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모든 것을 공리주의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의미의 공리주의자는 아닙니다. 따라서 인간 존중, 칸트주의적 관점, 그리고 인권 이론이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 같습니다. 도네건(현재로서는 도네건의 견해일 뿐이지만)은 성경적 윤리가 칸트주의적 윤리 접근법보다 훨씬 더 나아간다고 분명히 말할 것입니다.

그 문제를 완전히 해결했는지 는 확신할 수 없지만, 도덕 이론이 발표된 지 몇 년 후 우리 철학 학회에서 그가 기초 강연을 했던 때가 기억납니다. 토론 시간에 켈빈 대학의 리치 마오가 (아마도 에드먼드 건물 동쪽 날개였을 겁니다) 저쪽 구석에 서서 연단에 있는 도네건에게 질문을 던지며 기독교 윤리가 그의 윤리적 사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차근차근 설명 하도록 이끌었던 것이 떠오릅니다.

그는 점차 깨달음을 얻어가며 이해하기 시작했지만, 이전에는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던 방식으로 생각해야만 했습니다. 그는 호주의 감리교 가정에서 자랐지만, 대학원 시절 이후로는 유신론적 관점에서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매킨타이어는 기독교 윤리학자들 사이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그는 신학자 스탠리 하우어와스에게 큰 영향을 미쳤는데, 하우어와스는 보다 신학적인 관점에서 덕 윤리학을 발전시키고 이를 전통의 서사, 즉 윤리학에 대한 서사적 접근 방식과 연결시켰습니다. 다양한 전통에 대한

강조에서 그러한 경향을 암묵적으로 엿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통과 공동체의 삶에 참여하고 그 이야기를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은 그 전통의 가치를 내면화 하고 그 전통의 미덕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그래서 도덕 발달 이론 전체가 이런 접근 방식에 의해 심각한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매킨타이어는 특정 전통의 장점을 어떻게 비판한다고 말할까요? 네, 바로 그게 약점입니다. 일관성을 유지하려고 애쓰는 거죠.

최종 결과물을 고려하려고 노력합니다 . 하지만 그는 명확한 비판적 기준점을 정립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일의 도덕적, 사회적 가치를 저울질해야 하는 문제가 됩니다.

『덕 이후』에서 저자가 가장 먼저 하는 일 중 하나는 호메로스 전통의 귀족 윤리와 후대에 소크라테스 윤리로 발전하는 윤리 사이의 대조를 제시하는 것입니다. 후자는 아름다움, 힘, 명예 에 관심을 두죠 . 이것이 바로 귀족 윤리입니다. 호메로스의 작품에 익숙하다면 그의 영웅들에게서 이러한 경향을 찾아볼 수 있을 겁니다.

소크라테스는 완전히 다릅니다. 그의 관심사는 정의와 우정입니다.

틀렸다고 말할 수 있을까요 ? 틀렸습니다.

말하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 그는 그것이 만들어낸 사회의 종류라는 측면에서 열등하다고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 명은 스파르타를 건설했고, 다른 한 명은 아테네를 건설했습니다. 당신의 선택을 하세요.

네. 네, 정확히 맞습니다. 더할 나위 없이 정확하세요.

인간의 번영은 사실상 궁극적인 목표, 즉 궁극적인 목적을 나타내는 용어로 자주 사용됩니다. 인간의 번영. 번영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철학 전통에서 번영이란 자신의 잠재력을 온전히 실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완전한 개화. 번성. 인간 잠재력의 완전한 개화.

하지만 그건 아리스토텔레스적 목적론을 전제로 하죠. 아, 이야기가 너무 길어졌네요.